


부산광역시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시립박물관 (전시운영팀)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2022년 5월 9일(월) 배 포 족 시	담당자	실장 이현주 팀장 성현주 주무관 정주희
		연락처	051-610-7120 051-610-7143 051-610-7144

부산시립박물관, 2022년 특별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개최

- ◆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보 3점, 보물 12점, 시도유형문화재 11점 등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 110여 점이 한자리에 모여
- ◆ 6월 4일에는 부대행사로 불교 전통문화 국가무형문화재(불복장작법, 영산재) 시연 예정

부산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60일간 부산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국시대 처음 전래된 이래 불교는 굴곡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늘 함께해왔고, 불교적 세계관을 조형화한 불교미술에는 부처의 힘을 빌려 현세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 민초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불교미술의 역사성과 그 안에 함축된 상징성을 조명하고,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합천 해인사, 남해 용문사, 창원 성주사, 양산 통도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서울 경국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등 전국 16개 주요 사찰과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중히 보존해 온 불교미술의 정수 精髓 110여 점이 이 전시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전시구성은 ▲1부 <불상 佛像, 부처님의 참모습> ▲2부 <불복장 佛腹藏, 영원의 시간> ▲3부 <불화 佛畵와 사경 寫經, 진리의 세계> ▲4부 <부산 근대의 불모 佛母, 완호 玩虎> 총 4부로 이뤄졌다.

1부 <불상 佛像, 부처님의 참모습>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불상과 보살상, 조사상 祖師像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불상은 시대별로 각기 다른 조형적 특성을 가지지만 모두 한국적 정감이 느껴지는 편안한 모습으로 표현돼 보는 이에게 정신적 안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사상 祖師像으로 해인사의 고승 희랑대사의 노년기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통해 고승의 높은 신앙적 경지를 느껴볼 수 있다.

2부 <불복장佛腹藏, 염원의 시간>에서는 한국의 독창적 불교문화인 불복장 의식과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주요 복장물을 소개한다. 불복장은 불상이나 불화 조성 후 내부에 성물을 넣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해당 시기 불교문화재의 보물 창고다. 종교적 염원, 개인과 국가의 안녕 기원 등 당시 사람들의 지극하고 간절한 바람들이 담겨있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상 복장물>, <남해 용문사 사천왕상 복장물> 등 대표적인 불복장의 사례가 전시된다.

3부 <불화佛畵와 사경寫經, 진리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내용을 그림에 담아낸 불화와 경전을 베껴 쓴 사경을 살펴본다. 불화에는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램이나 무병장수, 극락왕생 등 복을 바라는 신앙심이 잘 드러난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높은 예술적 가치로 이름난 <수월관음도>, <나한도> 등 고려 불화와 합천 해인사와 창원 성주사의 <감로왕도>, 예천 용문사의 <화장찰해도> 등 조선 불화를 선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은 길이 9.5m, 너비 6.3m에 이르는 야외 의식용 대형 불화인 <남해 용문사 괘불탱>도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부 <부산 근대의 불모佛母, 완호玩虎>**에서는 부산의 영도 복천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 현대 영남지방 불교미술 화단에 큰 영향을 끼친 완호스님의 작품을 통해 지역의 불교미술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14점의 시·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까지 유례없이 많은 지정문화재가 출품돼 그간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정수精髓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품작 중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2020년 10월 국보로 승격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해인사 밖으로 나들이를 나오게 된 것이라 더욱 뜻깊다.

전시와 함께, 6월 4일에는 불교 전통문화 관련 국가무형문화재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과 <영산재靈山齋>의 시연행사가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또 전시 기획학예연구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시 해설을 하는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도 5월 27일과 6월 24일 양일간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된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미소를 마주하신 모든 분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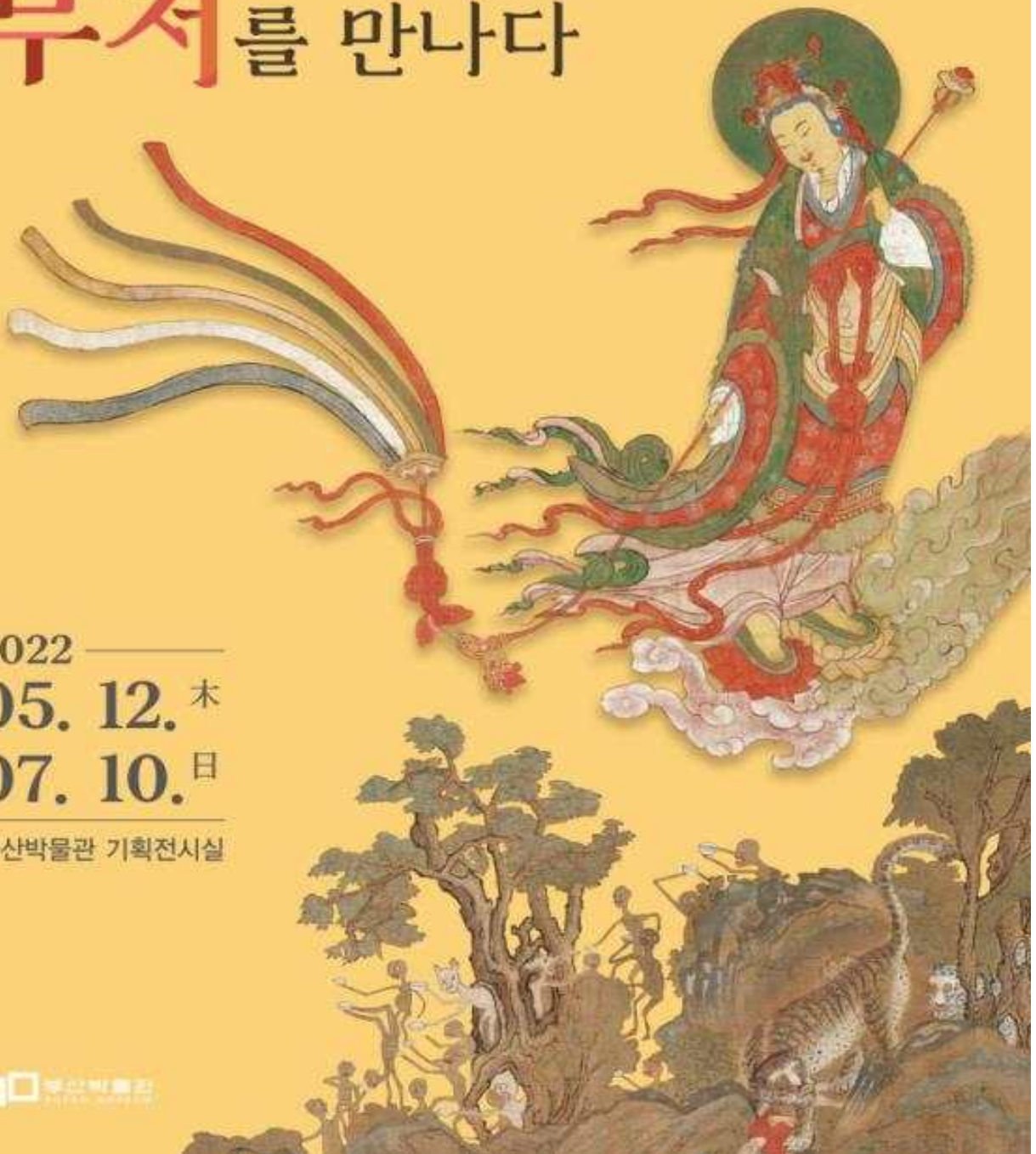
2022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Special Exhibition of Busan Museum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Encounter with
the Buddha :
Buddhist Art of Korea

2022 —————
05. 12. 木
07. 10. 日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 국보 금동보살입상(부산박물관)



△ 국보 건칠희랑대사좌상 (합천 해인사)



△ 국보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제사리호 (부산박물관)



△ 보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서울 경국사)



△ 보물 수월관음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보물 영산회상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보물 감로왕도 (창원 성주사)



△ 보물 괘불탱 (남해 용문사)